

이긴자는 죄를 해결해 주는 걸레와 같은 존재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생명과일

성경에는 생명과일을 먹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과일이 믿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요, 부활함을 입은 영이라는 말씀을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1초 1초 생명과일을 먹어야 영생이지 1초 1초 생명과일을 먹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과일은 바로 성경 말이요, 성경 말은 바로 영적 말이고 영적 말은 영적 과일이고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은 영인데 영생을 주는 영인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영이고로 마귀를 이기는 영이요, 사망권을 이기는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과일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말할 하면 너무나 어려운고로 이 말씀을 듣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까봐 말씀을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명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마귀를 이기는 마음입니다. 사망권을 이기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살고자 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을 것이요, 그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희생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희생적인 마음이 있어야 영생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욕심의 마음 이것은 바로 죽음을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인색한 마음이 죽음을 주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이긴자의 기도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준 고마운 조상이 되시고

로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이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 반납을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반납을 한다고 해 놓고 반납을 안 하는 건 더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긴자가 된 것을 신앙 간증담으로 대충 표현을 해줬던 것입니다. “이것을 희생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서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이것을 버려도 좋으니 이제 당신 뜻만을 이루어주소서.” 하는 기도를 수년간 오랫동안 계속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생명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기려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님 소유로 반납을 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룬 다음에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려도 좋고 지옥에 버려도 좋으니 이것을 이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룬 다음에 이것을 당신 마음대로 성가시면 버리고 당신이 마음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도 좋으니까 당신 뜻을 이루는 데 이용을 하소서.” 이러한 부탁의 기도를 오랫동안 매일같이 했다면 그게 바로 진짜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로서 이긴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이긴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긴자의 죄 담당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고로 이 기도를 긴 세월을 계속해서 하게 되니 하나님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긴 세월동안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이와 같이 호소를 했었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생활 전체를 이 사람이 다 안다고 했던 것입니다. 다 아는 고로



연단 받은 밀실을 배경으로 한 구세주 조희성님

억울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고 그 죄를 담당해서 죄를 다 해결해주고 나면 이튼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오야 정상인데 또 마귀한테 씌워가지고 더러운 죄를 짓고 시커멓게 때를 묻히고 오면 참말로 복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초창기에 여러분한테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옛날 영모님도 이 사람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하는 건 당연하지만 남의 죄까지 담당을 하고 남의 죄까지 다 해결을 해주고 깨끗한 모양으로 그대로 있으면 보람을 느끼고 기쁘네 이제 또 죄

를 짓고 또 더러운 심령을 가지고 올 때에는 바로 이제그대로 복통이 터질 정도의 통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 역사를 하면서 3일을 넘기지 않고 통곡을 하고 복통을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말을 하면 곧이 안 들겠지만 옛날에 영모님이 단상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본 사람도 있고 또 밀실에서 해와 이긴자가 통곡을 하고 이제 땅을 치고 통곡하는 모습을 밀실 식구들은 봤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도 납득이 가질 않았던 것입니다.

해와 이긴자가 그 뻘죽한 우산오르다가 사람 옆구리를 “이 년아 죽어, 이 년아.” 하고 찔러. 그래서 난 그 당시에 이해가 안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

사를 맡아가지고 하나가 그거는 아주 양반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느 때는 어느 정도나면 이런 쇠 덩어리가 있으면 돌 해골을 까서 당장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자유율법을 잘 지켜야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디려니가 울화통이 터지면서 복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 복통이 터지고 울화통이 터지는 걸 참는 것은 이 사람이 긴 세월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따라 희생제물이 되겠다고 하나님한테 맹세를 한 사람이고로 당신의 뜻을 다 이루고 이것을 버려도 좋으니까 당신 뜻을 이루어 달라고 애걸복걸 애원하던 그 긴 세월이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런 세월이 없었다면 이 사람도 역시 해와 이긴자처럼 우산대로 옆구리를 찌르고 막 때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막 때리고 그러면 여기 붙어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작은 거 상관없이 막 그냥 두드려 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해와 이긴자나 영모님이 그 옛날에 사람 두드려 패고 그런 모양을 이제 볼 때에는 납득이 안 가고 의인이 돼 가지고 왜 저러실까? 이렇게 이해가 안 갔는데 이 사람이 이 역사를 해 보니까 이제야 그 분들은 참 양반이라고 지금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씻어주고 해결해 준 다음에 또 범죄를 해가지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면 이 사람 가슴에 “너는 지옥에 꼭 보내겠다.”라는 용어가지는 것입니다. 그 때를 차라리 때리는 게 낫지 지옥에 던진다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죠?

여러분들이 자유율법이 뭐라는 걸 배웠고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어떤 진리라는 걸 배웠으면서도 여전히 범죄를 계속

해서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이익만 구하고 자기 개인의 안일한 생활만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긴자 말대로 하면 실패할 일이 없어

이긴자가 시간 시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시간 시간이 죄를 해결해 주고 그럴 때는 그 죄를 담당하는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걸레와 같아가지고 그 죄를 전부 오염을 받아야만 바로 그 죄가 해결되지 오염을 안 받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시간 시간이 말씀드리지만 무엇이든지 허락을 받고 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허락을 안 받고 하면 결국은 사자마귀가 잡아가지고 갖은 그 계계와 같은 유혹의 꼬임을 가지고 달콤한 말을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무엇을 하는데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허락을 받으면 그 마귀를 죽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앞을 내다보는고로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맘대로 하나씩 결국은 실패를 하고, 일이 잘못 되어가지고 혈압이 올라 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지금도 역시 영적 엄마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잘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같이 희생하는 생활을 해야 그 영이 자라고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 희생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1992년 5월 26일 말씀 중에서 말씀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14) 의인 열 명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할 새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신이 아브라함의 핏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길손 셋은 아브라함의 웅성한 접대를 받고 거기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소돔으로 향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을 전송하려 한걸까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창 18:17)라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거하여 하나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분신인 천사 둘이 앉아서 소금바다(사해) 남단에 있는 소알 성읍을 경유하여 소돔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길손 셋을 배웅하느라고 따라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고 하면서 그 도시가 구원받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다. 죄를 지어 무서운 죄악이 가득 넘쳐 있었습다. 하나님의 귀에는 그 죄악의 외침 소리가 그치지 않고 들려왔기 때문에 그 실정을 직접 보러 가시는 길이라고 밝혀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낮 술을 먹고 향락에 빠

져 살면서 착한 일은 하지 않는 방탕과 죄의 구렁인 소돔과 고모라가 돌구렁이와 같은 마귀한테 이제껏 능욕당하여 오다가 마침내 싫증이 난 마귀의 아귀리에 통째로 삼키게 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고 있는 가까운 핏줄인 조카 롯만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똑같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면전에 그대로 섰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노여워할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은 자신 속의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벌을 줄 줄도 모르며 또한 생명을 죽이는 능력이 없는데, 마귀 조종을 받은 죄인이 성경에다가 벌을 주어 멸망케 하는 하나님으로 크게 오인하여 잘못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후반부를 현세에 오신 구세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고쳐보았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과 선한 영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정



고모라와 함께 타락한 소돔 성 <https://namu.wiki/w/소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창18:22) 가까이 나아가 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악인도 벌 줄 수 없으며 오로지 못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선한 영이심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사람 속에서 주장하는 악한 영이지 사람의 생명인 하나님의 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옳다. 나 여호와와 생명의 신으로 사람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만물 속에도 다 깃들어 있다. 나는 죄짓는 사람들을 벌 주어 죽게 하려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 속에 있는 나의 생명을 유괴하고 사람 속에서 음욕을 일으켜 나

«1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14) 의인 열 명을 원하시는 하나님

의 피를 더럽히고 나의 영이 되는 양심을 마비시키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사람 속에 죄를 품은 악한 영을 멸하다가 사람 속에 계시는 당신의 생명까지 다칠까 두렵나이다.”

“아직은 나의 때가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과 선한 영을 분리할 수 없구나. 나의 지혜와 능력이 한도 끝도 없이 무한대로 자라 마귀를 능가하는 때가 이르면, 비로소 사람 속에서 마귀 영의 포로로 있는 나의 영이 되는 생명을 온전히 구원할 것이니라. 지금의 나 여호와와 마귀가 집권하고 있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하나 없구나, 산에 있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어 깃들 곳이 있건만...”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마귀를 한 마리도 남김없이 없애버리기 전에는, 당신이 이 세상 어디에도 머리 둘 곳도 없으며 편히 쉬 수 있는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기막힌 사정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눈물이 두 눈에 가득 고였습니다.

몇 사람의 의인만 있다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서는 괜한 말로 아브라함을 슬프게 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얼른 화제

를 옮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몇 사람의 의인만 있다면 그 의인들 속에 있는 나의 영과 합세하여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려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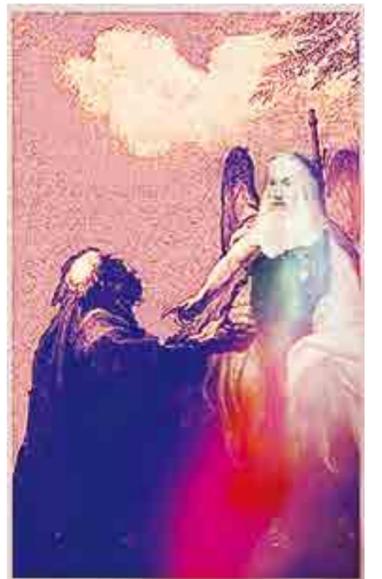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희망적인 말씀을 듣고 성 중에 온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온’ 숫자 만큼 의인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직감했습니다. ‘온’이란 백(百)을 가리킴이요 그 숫자에는 ‘많다’ 또는 ‘모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흑시 의인 백 명이 못 미치어 두 도시의 성 안에 있는 온 백성들이 멸망당할까봐 염려되어 온 숫자의 절반에 해당되는 의인 오십 명만 있더라도 구원이 가능한지 하나님께 여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오십을 찾아 그들과 힘을 합친다면 온 지경을 점령한 마귀를 넉넉히 물리칠 수 있다. 그러면 재앙을 획책하고 있는 마귀장난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재에 감히 아뢰렵니다. 죄없는 사람 오십 명에서 다섯이 모자란다면 그 다섯 때문에 온 성이 멸망당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쪽에 죄없는 사람이 사십오 명만 있어도 마귀가 내리려고 하는 재앙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아브라함이 “사십 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고 여쭙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십 명이라도 충분히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아브라함이 또 여주었습니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십 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십 명만 되어도 마귀한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하고 대답하시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소돔에는 착한 사람이 사십 명도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다.(다음호에 계속)* 안젤라